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치경



새해 호남인의 최대 관심사는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고위관료의 영남 편중은 심각했다. 따라서 탕평의 가장 큰 관건은 고위직의 호남 편중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다.

'창조적 탕평'이라야 한다

가운데 영남 출신이 501명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했다. 반면, 호남은 184명으로 1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겉다리 구색 맞추는 역효과

과연 탕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먼저, 인사다. 호남은 (김대중 정부를 잠시 제외하고) 슬한 소의를 당해온 터에서 중앙부처 장·차관부터 지역 출신 인사를 많이 기용해 달라는 비교적 단순한 주문이다.

롱 나뭇' 할 정도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숫자만 맞춰진다고 되는 걸까? 선행은 '실세' 자리에 호남인사를 얼마나 배치하느냐에 달려있다.

적인 역활을 할 때 비로소 참된 인사탕평에 근접할 수 있다.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 십년 동안 뒤쳐졌던 호남인 만큼 '경제탕평'이 안 되면 반쪽짜리다.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줘야 비로소 마음을 녹이는 탕평이 가능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배출에 실패해 지역 핵심 숙원사업도 그만큼 더뎠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도.

'경제탕평'까지 이뤄야 완성

전남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프로젝트)도 지난해 말 10년 만에 겨우 사업승인을 받고 올해 초 첫 삽을 뜨게 됐지만 앞길은 까마득하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와 경제탕평으로 소외됐던 호남을 더 따뜻하게 안아야 하는 명분은 자명하다. 이젠 한 정파의 대표가 아니라 오는 2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출발하니까 ...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시 설

박 당선인 공약사업 대부분 미반영되다니

국회가 1일 새벽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그동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는 '능청 처리'를 되풀이해 왔지만 해를 넘겨 예산안을 상정·처리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편으로,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에서선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광주시는 3년 연속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광주 위상 강화 계기로

광주 무등산이 마침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국립공원 지정으로 공원 면적이 도립공원 당시 30.22km에서 75.5km로 2.5배 확대된 것을 비롯해 관리 비용도 전액 국가예산으로 전환되며, 공원관리 예산 규모도 시비 25억 원에서 국비 19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를 확보했지만 지난해 7조1940억 원에 비해 9000억 원(12.5%) 가량 줄었다. 다형스러운 건 적자 투성이인 F1(포틀러) 대비 운영비 중 100억 원(지난해 5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 적자폭 감소와 지속적인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내 걸었던 대선 공약이 헛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김창균 1487년 포르투갈의 항해가 바르톨로뮤 디아스(Bartolomeu Dias)는 주앙2세로부터 인도양 항로 개척의 임무를 받고 항해를 떠난다.

희망을 이야기하자 1981년 어느 날, 회사로부터 불속 하고 통지를 당한 블롬버그. 그날 저녁 아내에게 모피 재킷을 선물한 그는 "직업이 없는데도 우리는 생활인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다음날 퇴직금 1000만 달러를 투자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블롬버그 통신사를 설립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자

지에 달하는 프랑스 혁명사를 타고하여 친구에게 검토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그 원고를 친구 집의 하녀가 불쏘시개로 난로에 넣어버렸고, 절망한 칼라일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기고 유순남 오래전에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추억의 선생님들'이 보였다. 이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

'종이조심'씨 계세요? 앞서서 좋단다. 물론 처음부터 수입이 좋았던 것은 아니고 십 년 정도 하다 보니 단골 손님 만드는 노하우가 생기더라고 한다.

고, 더 자극적인 폐습을 일삼게 될 것이다. 사실 무단결석, 음주, 흡연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인이 되면 범죄가 안 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언어 프로젝트' 처럼 고용 유연성 대책 필요하다 현대카드사가 추진하는 '언어프로젝트'가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보면 계획을 가지고 사표를 내는 경우보다 충동적으로 사표를 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떠나온 회사를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회한과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인간사다.

▲김민주·광주 남구 방림동

無等鼓 2400년 된 미라에서 미라 제작 시 뇌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고대 도구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민주, 논설주간 송정환, 편집국장 최경환